



지육 kg당 2,600~2,800원대 형성될 듯



강세원 이사
(퓨리나코리아)

11월 들어서도 돈육소비가 계속 부진할 것으로 보여 돈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올해 총 15만톤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수입돈육의 급증과 판매재고가 겹쳐 돈가 하락을 더욱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

재고소진을 위한 파격적인 가격경쟁력도 원인이 되겠지만 수입돈육은 이미 국내 급식업체 및 일반 식당 수요처를 잠식해 가고 있는데 이어 최근에 미국 수입 냉장 돈육의 판촉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 백화점이나 유통업체에서도 그 잠재수요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 돈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져 가고 있다.

또한 수출세가 원료돈 공급사정이 점차 풀리고 시세하락 및 엔화강세까지 겹쳐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지만 국내 돈육소비 하락세가 이어지면 잔여육 재고가 부담이 되어 수출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돈가하락을 반전시킬 정도로 시장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다.

다만 최근 국내사육두수가 사상최고 두수인 781만두를 넘어섰다고 발표되고 있지만 아직

도 공급두수의 확대로 이어지기에 몇 개월의 시차가 있을 것이며, 따라서 공급확대에 따른 돈가 하락 현상이 겹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육두수를 뒷받침하는 양돈사료 생산량은 사육두수에 비해

아직도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고 있다. 계절변화와 출하두수의 증가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최근 9월의 사료생산량이 전월에 비해 7%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아직도 47% 감소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국내 공급두수의 증가가 적어도 연말 이후부터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불러 오고 있으며, 따라서 11월에 하락된 돈가가 12월 이후 회복하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11월 예상 돈가는 2,600~2,800원 사이의 연중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도 2~3월 이후에나 다시 3,000원대 이상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돈**



11월의 돈가는 2,700~2,800원/kg 전망

10월 돈가가 예상돈가 3,000원/kg~3,100원/kg보다 200원/kg~300원/kg 낮게 형성되었다. 이는 9월말 추석 이후 돈육 소비의 정체가 주 요인이고, 둘째 요인으로는 출하두수의 소폭 증가, 셋째 요인으로는 출하중량의 증가로 들 수 있다.

최근 발표된 돼지 사육두수 7,813천두(모든 884천두)는 사상 최고치로 사육두수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일반적인 관측이 다소 벗어나고 말았다.

그러나 사료 생산량 기준으로 사육두수의 대폭증가는 통계 자체가 다소 의심스러운 점을 감안할 때 돈육 소비의 정체가 돈가 하락의 주 요인으로 판단된다.

11월부터는 전체적으로 돈육 수입량은 감소할 것이지만 국내 보유 재고 과다(5만톤으로 추정)와 냉장육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급 측면에서 보면 과잉으로 생각되고, 소비측면에서는 11월이 연중 가장 소비저점으로 돈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셀러리멘의 입장에서는 11월이 외식여력이 없는 달로서 즉, 생활비가 가장 부족한 달임) 그리고 수출 측면에서도 일본 햄, 소세지



최동수 부장
(제일제당 육가공업무팀)

MAKER의 최대 성수기가 연말 선물세트 시즌이나 원료확보는 12월 초로 종결되기에 12월 수출 부분도 불투명하여 국내 돈육소비의 급격한 상승이 없는 한, 3,000원/kg 이상의 돈가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1월의 돈가는

2,700~2,800원/kg으로 전망된다.

국내 육가공업체의 입장에서는 돈가하락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즉, 판매부진에 의한 돈가하락이므로 부위육의 원가는 하락할지라도 재고 체화로 인한 자금 부담이 가중되어 돈가하락을 흡수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없는 한, 중소 가공업체는 가공두수 증가가 어렵고, 냉동육 비축 또한 과거와는 달리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국내 돈가 조정기로 판단된다.

일본과 같이 수입 자유화에 의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높고, 생고기 판매 능력이 없는 육가공 업체는 생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양돈 농가가 해야 할 일은 극명하다. 고품질 및 원료돈 생산과 생산비 적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바로 그것이다. **양돈**



유통 · 소비 정체, 연말들어 회복 예상

돼 지고기 소비가 정체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관심있는 것은 그동안 돼지고기는 명절 이후 또는 계절적 요인을 들어 비수기가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이같은 현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외식산업에서 식육과 관련된 식자재 사용 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다시 말해 계절에 관계없이 음식점 및 외식형태가 증가되고 있다는 말이다.

최근 돼지고기 시장은 국내산의 경우 소폭 가격하락과 소비둔화가 이뤄지고 있다.

수입육 역시 지난 9월말 기준 12만여톤에 달하는 수입으로 재고과잉에 따른 저가판매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판매가 순조롭지 않다.

다소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명절 이후 소비둔화 시기가 보름에서 한달 가까이 이어지는 것이 통례인데도 불구하고 물량은 작지만 꾸준한 판매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창고에 쌓여있는 수입육 처리는 내년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같은 수입육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국산육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는 항상 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



권영철 국장
(미트저널 편집국)

는 안될 것이다.

또한 7백80만두로 사상 최고의 사육두수를 나타내고 있는 돼지는 실제 산지로 가면 출하두수가 여의치 않아 큰 폭의 가격하락을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통시장 동향을 보면 수입육의 경우 대량물량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가격 역시 올 여름

kg당 5천원 미만에서 정체를 나타내고 있다.

유통업체 역시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자금회전에 어려움이 있어 더욱 움츠러 들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이같은 소비정체 현상이 예년에 비해 활발하지 않다는 것 뿐이지 소비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업계는 또 향후 돼지고기는 쌀과 같이 주식(?)의 한 일원으로 정착돼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 11월 소비가 돼지고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월 소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12월과 내년 상반기까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양돈**